

고구려·당 전쟁 나라의 명운을 걸고 제국에 맞서 싸 우다

644년 ~ 668년



고구려와 당의 전쟁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

1 당 고조(高祖) 이연(李淵)

수 양제(隋煬帝)의 3차에 걸친 고구려 원정의 후유증과 무리한 토목 공사가 계속되면서 양제의 통치에 대한 수 백성들의 원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양제의 계속된 실정에 반대하는 세력이 생겨나고 내란이 발생하면서 수의 혼란은 깊어갔고 결국 수는 성립한지 40년도 채 되지 않아 멸망했다. 수를 대신하여 618년 이연이 당(唐)을 세웠으니, 그가 바로 당 고조다. 당시 고구려에서도 3차에 걸친 수의 고구려 원정을 물리쳤던 영양왕이 죽고 영류왕이 즉위하였다. [관련사료](#)

고조는 613년 수의 2차 고구려 원정 당시 회원진(懷遠鎮)으로의 군량 운반을 감독하면서 당을 건국한 이후 주변국과의 우호에 힘쓰며 창업기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특히 수 말기의 혼란 속에 강성해진 돌궐에 칭신(稱臣)까지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구려와의 전쟁에도 관심을 쏟을 틈이 없었다. 고조의 이러한 생각은 622년 고구려에 보낸 조서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조서에는, 수와 고구려가 전쟁을 계속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으나 지금 당과 고구려는 화통한 상태이므로 각기 서로의 영역을 잘 다스리자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고구려와 수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양국 포로의 교환을 제의하는 등 시종일관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관련사료](#)

고조는 수의 고구려 원정이 무력을 남용하고 중원을 피폐하게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자신은 명분을 위해 실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당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내치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고조의 치세에 고구려와 당은 유례없는 화친기를 보냈다.

2 태종(太宗)의 고구려 인식

고조의 뒤를 이어 태종 이세민(李世民)이 즉위하였다. 태종은 즉위 초부터 내치에 집중했던 아버지와 달리 적극적인 대외팽창정책을 실시하여 돌궐, 토욕혼, 고창, 설연타를 차례로 복속해나갔다. 태종은 즉위년인 626년, 신라와 백제가 고구려가 당으로 입조할 길을 막는다고 하자, 산기시랑(散騎侍郎) 주자사(朱子奢)를 고구려에 보내 백제, 신라와 화친을 권하며 삼국 사이의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관련사료](#) 한편 627년에는 돌궐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던 태종은 630년 돌궐을 침략하여 힐리가한(頡利可汗)을 사로잡으면서 아버지 고조 대에